

JAPANESE DOCUMENTS CENTER NEWSLET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Japanese Documents Center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자료센터 소식지 제20호 2004년 1월 20일 발행인 김용덕

▶일본자료센터 행사정보

제4차 일본 사회과 교육자 초청연수 실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자료센터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공동으로 제4차 일본 사회과 교육자 초청연수를 실시하였다. 제4차 연수의 경우, 기존의 2002 한일월드컵개최지에서 중·고교 교사를 선발했던 것과는 달리 冲 와 福岡縣으로 선발지를 확대하였다. 다만, 일본내 학사일정관계로 총 22명이 선발되었으며,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14박 15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3년간의 행사운영 경험과 반성, 사전답사 및 준비를 통하여 예년 연수때 보다도 가장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그 동안 참가자로부터 요청이 많았던 『홈스테이』를 대신하여 『홈비지팅』을 실시한 결과 그 호응과 반응이 상당히 높아 내년도에는 사전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보다 의미있는 『홈비지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홈스테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행사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참가자들은 설문지를 통하여 본행사를 통해 얻은 것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들었다.

-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하여 올바른 것을 많이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
- 한국이 매우 가깝게 느껴졌다.
- 홈비지팅과 자유시간, 한국교사와의 만남을 통하여 한국인의 정서를 느낄 수 있었다
- 앞으로의 한일관계우호에 기여하고 있다.
- 지금까지 본인이 갖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함을 느꼈다.

- 『한국을 배우는 것은 일본을 배우는 것』, 『한국은 일본의 거울』이라고 느꼈다.
- 한일양국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몸소 체험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희망하는 강의주제로는
- 교육관련: 제7차 교육과정 및 한국의 학교교육제도(전반)
- 사회관련: 한국의 유교

한국가정교육(성장, 교육)





사회정세(일반)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복지)
 지리(지형, 기후, 도시와 촌락)
 - 문화관련: 한국의 전통문화의 역사와 종류
 - 역사관련: 한국현대사(1945-현재)
 한국인이 보는 한국전쟁의 원인, 경과, 영향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육의 현황과 역사인식의 모습

한국사개론
 고대부터 현재에 걸친 한국과 일본의 정치경제적, 문화적 교류사 등을 들었다.
 • 강의
 - 교육장소: 서울대학교 호암관
 - 강의내용(표 1 참조)

표 1. 일본 사회과 교육자 초청연수 강의내용

주 제	시 간	강 의 명	강 사(소 속)
기조강연	1시간 30분	한국경제를 보는 눈	김현철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한 글	2시간	한국어와 한글	신혜원 강사 (서울대 어학연구소)
생 활	2시간	한국의 일상생활과 국민성	이지원 박사 (서울대)
교 육	2시간	사회과 교육의 현황	현명철 박사 (경북고등학교)
정 치	2시간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Network의 변화와 정치변동비교	박철휘 교수 (외교안보연구원)
역 사	2시간	근대 한국의 역사적 변화 · 전개	김익한 교수 (명지대 기록관리대학원)
전통문화	1시간 30분	한국의 전통음악의 특성	황준연 교수 (서울대 국악과)

▶일본연구동향

日本研究座談會 시리즈 II 피터 두스(Peter Duus) 교수 초청 강연

The Public Memory of the War in Japan after World War II

1. 개 요

가을을 맞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일본자료센터는 지난 2003년 9월 26일 스탠포드 대학의 피터 두스 교수를 초청하여 “전후 일본대중의 전쟁에 관한 기억 (The Public Memory of the War in Japan after World War II)”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하였다. 이 강연은 현 국제대학원장인 김용덕 교수의 사회로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 졌다. 특히, 김용덕 교수는 20여년전 피터 두스 교수의 저작 “Rise of Modern Japan”을 한국어로 번역한 인연이 있어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었다.

피터 두스 교수는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973년 이래 스탠포드대학(Stanford University)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일본 근대사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자이며, 전 스탠포드대학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이자 현재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의 특별 선임연구원이기도 하다. 그는 특히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

The Japanese Discovery of America: A Brief History with Documents, 1997

Modern Japan, 1997

The Abacus and the Sword: The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5-1910, 1995

Feudalism in Japan, Third Edition, 1992

Japan's Informal Empire in China, 1989

The Cambridge History of Japan, Vol. 6. The Twentieth Century, 1989

2. 피터 두스 교수의 강연 내용

가. 서 론

본 강연에서는 일본의 대중이 어떻게 제2차 세계대전을 기억하고 있는지에 관해 소개하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 전쟁이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여 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1945년 이후의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기로 하겠다.

우선 2, 3년 전쯤 싱가포르의 한 신문에 게재된 정치 만화를 묘사함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그것은 전후 일본에서의 전쟁에 관한 대중의 기억에 대해 일반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처럼 보였다. 그림에는 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그는 푸른색의 정장을 입고, 머리에는 포마드 기름을 발라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그는 정치가인 것처럼 보인다. 아니면 관료이거나 교수인 것 같다. 그는 앞에 글씨가 쓰여진 종이를 들고 펜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쓰여진 글을 지우고 있다.

그 만화의 아래 부분에 쓰여진 설명은 이렇다: “이것은 일본에서 전시 역사가 쓰여진 방법이다.” 피터 두스 교수는 그것이 일본의 바깥에서는 꽤 널리 퍼진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의 대부분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들은 전쟁에 관하여 집단 기억상실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

다. 그들은 전쟁의 기억을 억누르려고 한다. 그러므로 역사 기록을 지우고 있는 이 중년 남자의 이미지는 그러한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주위에 많은 증거가 있겠지만, 이것은 전쟁을 기억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본 사회와 정치의 제 요소들 가운데 하나의 예이다. 여러분들은 가끔 보수적인 일본자민당 지도자나 특히 전쟁을 옹호하는 정치 리더들의 언급을 신문의 헤드라인에서 읽은 적이 있을 것이다.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989년 인가 1990년에 있었던 전 일본 수상 타케시타의 발언이었을 것이다. 그는 당시 “그 전쟁이 침략 전쟁이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미래의 역사학자들이 결정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전후 45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전쟁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으며 정확한 판단을 하기 전에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고,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보수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러분은 한국의 신문에서 일본의 수상이나 내각 관료, 또는 보수당원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공식 방문했다는 내용을 읽었을 것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동경의 한 가운데 있는 명치유신 이후에 전사한 모든 전몰자를 기념하는 신사(神社)이다. 그 야스쿠니 신사 안에는 A급 전범으로 기소된 13명의 전 일본군도 안치되어 있다. 이것은 곧 신사에 가서 그들이 존경을 표함으로써 전쟁의 정당성을 재확인 하는 방식으로 보여진다. 이 외에도 일본의 교육부는 물론 사적 압력단체가 전쟁기간 동안에 있었던 다소 불편한 일부 사실을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삭제하려고 하는 정기적인 시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최근 한국에서도 보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일본에는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기억을 잊거나 또는, 적어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억하지 않게 하기 위한 강하고 영향력 있는 힘들이 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은 일본에 집단 기억상실증이 없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도 있다. 적어도 전쟁에 관한 기억들을 억누르거나 왜곡하려는 보수적인 시도들은 성공적이었다. 예를 들면, 전쟁을 호의적인 방식으로 평가하려고 애쓰는 보수 정치인들에 의한 발언이 있었던 반면, 90년대 초기 종전 50주년 기념

식전의 일본 총리들은 전쟁에 관하여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 1993년 호소카와, 94년 하타, 그리고 무라야마 총리는 94년과 95년 두 번에 걸쳐 공식 사과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그들은 같은 수사적 표현을 사용했다. 대개 그들은 침략 전쟁이라는 표현과, 특히 아시아인들에 대해 끼친 고통에 대해 이야기 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에 끼친 고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를 했다는 것을 넘기지 암시하는 듯한 표현들을 사용했다. 그러한 발언들이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한 것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 표현은 언제나 한결같이 똑 같았다. 사과의 표현들은 개인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무성과 같은 관료기구에서 만들어 졌던 것이다. 그것은 전쟁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 위한 시도였다.

한편, 야스쿠니 신사에 대한 이런 공식적인 방문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헌법에는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1997년에 일본 대법원은 총리나 장관들이 공식적으로 신사를 방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공표했다.

마침내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도 교과서 개정을 위한 대부분의 노력들은 매우 제한된 성공을 이루었다. 2, 3년 전에 완전히 수정된 일본 역사를 기술한 유명한 교과서가 나오게 된 것이다. 그것을 출판한 것은 “역사교과서를 생각하는 모임” 이라고 불리는 사적 단체였다. 그것은 전시에 강제 동원된 위안부와 같은 예를 삭제한 것을 비롯해 일본 역사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교과서는 전국을 통틀어 아마도 2, 3개 학교에서 만 채택되었을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교육부가 5, 6년 전 교과서에 삽입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대항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말하고자 했던 것은 모든 증거가 말해주듯이 일본 정치계는 역사적 기억상실을 장려했다는 것이다. 또한 가능한 한 정확히 전쟁을 기억하고자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반대 증거도 있다. 그러므로 위의 정치 만화의 내용은 일본의 실제 상황을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주관적으로 한 측면만을 부각한 것이라는 내용). 이와는 달리 실

제로 전쟁에 대한 기억의 정치학은 매우 복잡하다.

일본이 기억하는 전쟁과 미국이 기억하는 전쟁은 매우 다르다. 미국에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싸운 좋은 전쟁이었다고 하는 일종의 사회적 동의(consensus)가 있다. 그것은 모두가 전쟁에 대해 매우 긍정하는 시기였다. 여러분은 미국에서 2차 대전에 관한 부정적인 해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전쟁에 관한 어떤 기준이 되는 관점이 없다. 전쟁에 대해 많은 관점이 있으며 어떠한 동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리고 전쟁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매우 많은 논의가 있다. 그것은 전문적인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TV와 같은 대중문화와 만화책, 소설, 공공 박물관 등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논란이다. 때때로 다른 것보다 집중적으로 복잡한 토론이 진행되기도 한다. 만약 여러분이 그 논의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일본에 있어 전쟁에 관한 대중의 기억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일본 대중이 기억하는 전쟁에 관한 세 가지 이야기

이것은 매우 복잡한 토론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2차 대전에 대해 일본에서 논의되는 세가지 주요한 이야기 또는 세가지 주요 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직 2차 대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그것이 1931년에 시작되었다고 하고, 일부는 중국과 전쟁을 시작한 1937부터 라고 하고, 일부는 1941년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때 시작된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대략 3종류의 이야기가 있다. 첫번째, 나는 그것을 “나쁜 전쟁”, 또는 “침략 전쟁” 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아시아의 해방을 위한 “해방 전쟁”으로써 좋은 전쟁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일본 외부에서는 아마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전쟁의 희생자”라는 이야기이다.

▶ 첫 번째 이야기: 침략 전쟁

이제 그 첫 번째는 군사 지도자들에 의해 계획되고 저질러진 침략전쟁으로서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것은 1945년에 미국이 점령국으로써 일본에 온 이후 일본인들을 민주적, 평화적으로 만들기 위해 재교육하려고 미국인들에 의해 고무된 이야기이다. 미

국인들이 일본 대중에게 명확히 하고자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전쟁이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쁜 전쟁이었고, 일본인들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첫번째로 시작한 일 가운데 하나는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것이 진실이다(This is the Truth).”라는 제목으로 12주 정도 방송되었다. 그것은 미국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전쟁 이야기였다.

그러나 침략 전쟁으로 전쟁을 규정하려는 주요한 시도는 동경 전범 재판이었다. 미국인들은 국제재판을 열어 28명의 군인과 민간 지도자를 기소했다. 이 사람들은 전쟁을 지도했던 대표자들로서 다소 독단적으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보통의 전쟁포로와 같이 고문을 당하거나 나쁜 처우를 받으며 재판을 받지는 않았다. 그들은 소위 평화에 반하는 범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았다. 이것은 1945년 전에는 국제법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던 것이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독일과 일본 지도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고안해낸 범죄였다. 이 지도자들의 근본적인 기소내용은 그들이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한 일종의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1928년까지 거슬러 그 음모를 추적했다. 그것은 일본인들에게 그들의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보여주려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피터 두스 교수는 동경 전범 재판이 일본인들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우선, 그 당시는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단순히 전후 복구를 위해 애쓰는 시기였다. 단지 그들은 식탁에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범 재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이유는 문화적 차이 때문이다. 미국 문화에서 재판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인들은 재판을 극화하기 좋아한다. 미국에는 재판에 관한 희곡과 소설들이 많이 있다. 미국인들은 드라마나 연극을 보듯이 재판을 본다. 재판을 통해서 단지 정의가 실현되고 선이 보상받고 악이 응징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연극배우들처럼 그 사람들의 특징과 개성을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만약 누군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그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버린다. 일본에서 재판의 문화적 의미는 매우 다르

다. 많은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 그들은 패배한 지도자이며 승자의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승자의 정의일 뿐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들이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전쟁 기간동안 일본을 이끌었던 일본의 천황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결국 그가 지도자였기에 전쟁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었다. 때문에 재판 그 자체는 아마도 대중 여론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

하지만 재판을 통해 전쟁 수행과정과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전체적인 자료와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자료들은 일본이 전쟁을 시작했고, 일본의 지도자들이 전쟁을 주도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것은 또한 일본 군인들이 전쟁 중에 미군과 동맹군 포로들에 대해 잔학행위를 했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 주었다. 그들은 또한 소위 남경 대학살과 같은 일로 기소되었다.

이것으로 일본인들이 스스로 이 증거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전쟁에 관한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기본틀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때부터 일본 역사학자들은 이 자료를 이용하여 전쟁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 시기 많은 역사학자들은 좌익성향의 마르크스주의자 또는 급진주의자였다. 그들이 바로 이러한 미국의 일본이야기를 만들었다. 우선 명치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보면 전쟁은 단지 1931년 또는 1941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것은 1874년 일본의 대만 원정 또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케 한 1876년 한국과의 대립, 중일전쟁 또는 러일전쟁 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이것을 근대일본사 해석의 중심적인 부분으로 만들었다. 이들 역사학자들이 의도했던 두 번째는 단순히 그 기간동안 권력을 가졌던 군, 관료 지도자 외에 전쟁의 책임을 확장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들은 정당, 재벌, 민간 관료 등으로 책임을 확장했고 전체 통치 계급에 전쟁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그들 중 상당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용어로 일본의 제국주의적 확장과 독점자본주의적 조건의 결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 이것은 침략 전쟁의 관점에서 전문 역사학자의 견해에 부합되지

는 않지만 일본 대중문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전후, 특히 1950년대에 많은 일본의 전쟁 픽션은 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예를 들면, “인간의 조건”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이 있는데 그것은 3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전체 영화 상영 시간은 9시간이나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매우 이상적인 젊은이의 이야기이다. 그는 만주에 가서 중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고 싶어 한다. 거기에서 그는 매우 잔인하고 냉소적인 일본군을 만난다. 마침내 그는 중국인을 돕는 것과 군에 넘겨주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한다. 그리고 일본군은 마침내 그를 짓밟아 버린다. 이런 내용이 수 시간에 걸쳐 전개되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전쟁의 끝을 보여준다. 이것은 비참한 전쟁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또한 일본인들이 만주의 상황에서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나쁜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일본 역사가들이나 대중문화가 모두 전후 시대로 들어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의 전쟁 이야기는 전쟁이 미디어의 주목을 받을 때마다 계속해서 다시 나오게 된다. 예를 들면 1970년대에 한 저널리스트가 남경대학살에 관한 책을 쓴 일이 있다. 그는 중국에서 희생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돌아와서 그 책을 출판했다. 이에 대해 아주 긴 대중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역사교과서 개정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다. 특히, 89년 쇼와 천황의 사망 이후, 진주만 50주년, 그리고 종전 50주년 기념식이 있었던 90년대에는 많은 대중 토론이 있었다. 이 때는 일본이 진지하게 위안부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들이 일본군에 의해 착취당했다는 사실을 밝힌 시기이다.

▶ 두 번째 이야기: 해방 전쟁

이제는 두 번째 좋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것은 일본인들이 일본의 침략이나 아시아를 침략한 잔인한 일본군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에, 일본인들이 유럽 식민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아시아인들을 해방하기 위해 영광스러운 노력으로써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1960년대 초기로부터 시작된다. 1963년에 하야시 후사오라는 사람이 “An Affirmation of

the Great East Asia War”라는 논란이 되는 책을 썼다. 위대한 동아시아 전쟁은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공식적인 명칭이었다. 하야시는 19세기부터 시작하는 긴 역사적 맥락에서 전쟁 책임에 대해 전반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기본적으로 그는 일본의 2차 대전 개입이 소위 위대한 동아시아 전쟁이며, 그것은 서구와의 100년 전쟁의 피날레였다고 묘사하고 있다. 1830년대 이래 서구 제국주의 열강은 아편전쟁을 통해 중국을 개방하려는 것으로 시작해서 일본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침략 전쟁이 아니며 일본이 이들 다른 억압당하는 아시아인들을 돕기 위해 한 영웅적 노력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그 전쟁은 사실 승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것은 그가 말했듯이 1945년에 군사적으로는 패배했을 지라도 아시아에서 유럽의 식민지가 점차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해방전쟁이 실제로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증거라고 한다. 또한 일본역사는 물론 일부 아시아에도 매우 긍정적인 흔적을 남겼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인식은 근본적으로 전쟁 당시 일본인들의 인식에 다름 아니다. 전쟁 기간동안 일본인들은 이 전쟁은 아시아인을 위한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전쟁이며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러한 입장의 반복이지만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것은 단지 싸움을 고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죄의식을 없애기 위한 것이 되었다.

그는 전후 침체된 일본 국민의 긍지와 민족주의를 일깨우기 위한 의도로 이 책을 썼다. 이것은 비판적으로 이야기해서 구세대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 때때로 엉뚱한 발언을 하기도 하는 타케시타와 같은 보수 정치가들이 발견한 견해이다. 이는 우익은 물론, 전쟁에서 희생당한 군인의 가족들이 고수하는 견해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후지오카 노부카츠(동경대 교수), 코바야시 요시노리(만화가)와 같은 이들도 일본 민족주의를 일깨우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중적 인기를 얻고 있으며 전후 세대인 젊은 역사학자들이나 평론가들로서는 이러한 민족주의적 입장이 매력적인 것이었다.

▶ 세 번째 이야기: 전쟁의 희생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쟁의 희생자라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자란 전쟁에서 죽은 군인이 아니라 도시와 가정에서 희생당한 민간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통의 일본인들은 2차 대전 기간 동안 그들의 물질적 안정과 건강을 희생당했다. 특히, 1944~1955년까지 대도시는 엄청난 폭격을 경험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동경 전범 재판 당시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통의 일본인들은 정부에 속았고 전쟁의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재판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 전쟁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점차 일본인들은 그들이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희생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당시 일본에서는 일본군이 미드웨이 해전은 물론 다른 곳에서도 패배하고 있는 중에도 그러한 소식은 전혀 전해지지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와 같이 희생자의 입장에서 다루어진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 그 대부분은 책, 편지, 에세이와 같은 대중문화와 관련되어 있었다. 한 예를 들면 1943년에 강제 징집된 대학생의 이야기가 있다. 그 학생은 군에서 상급자들에게 잔인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당했고, 건방지다며 가혹행위를 당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학생들은 가미가제 특공대와 같이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가기도 했다. 학생들은 빨리 이륙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이륙하는 법만 배운 후 미국의 함선을 공격하도록 훈련 받았다.

희생자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관한 이야기이다. 미군정기 동안 미군은 이 두 도시의 원폭투하와 관련한 어떤 공공 토론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점령이 끝나자 소위 원폭 문학이라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에 관한 영어로 쓰여진 흥미로운 책이 있다. 간단히 요약하면 이 원폭 공격의 기억은 미국이 여전히 수소폭탄과 원자폭탄 실험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강화된 것이다. 어떤 어부가 이 폭발로 방사능 낙진에 오염되었다. 이것은 일본이 원폭공격을 받은 유일한 국가, 사회로써 독특하게 희생당한 대상이라는 감정을 강화한다. 우선 이것은 1950년대에 반핵운동을 강조하는 평화운동으로

써 좌익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후 우익도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요점은 달랐다. 그들은 그러한 핵무기를 사용한 것은 정말로 잔혹한 일이며 일본인들이 미국인들보다 더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일본의 유일한 피폭 경험을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맥락에서 강력하게 어필하는 이야기였다.

희생자의 입장에서 전쟁을 묘사한 마지막 이야기는 7, 80년대에 나온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평화운동에 의한 노력의 결과이다. 그들은 일본의 젊은이들이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일깨워주고자 했고, 전시에 일본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자신의 기억을 쓰도록 했다. 그것은 굶주림과 병에 관한 이야기였고, 한번에 수 천명의 사람을 죽이는 거대한 폭발을 동반하는 동경의 공습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외에도 일본인들이 희생자가 되는 전쟁 이야기가 많이 있다. 만일 일본의 희생자들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일본인이 아닌 다른 희생자들을 있게 될지도 모른다. 거기에는 남경대학살에서 희생된 중국인이나 미군 전쟁포로, 또는 싱가포르에서 학살된 중국인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강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일본인들을 전쟁의 희생자로 바꾸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한가지 희생을 이야기 할 때는 가해자로서 폭격을 가한 미국을 이야기하게 된다. 이로써 전쟁을 이야기 할 때 미국을 떠올리게 된다. 아이러니 하게도 이로써 그들의 죄책감은 사라지고 다만 그 전쟁이 얼

마나 무서운 것이었나를 생각하게 된다.

다. 오늘날 일본 대중이 기억하는 전쟁

이 모든 이야기들은 완전히 서로 구별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질문은 “보통 일본인들은 어느 이야기를 믿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를 그들은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총리관저에서 1984년에 실시한 여론 조사가 있다. 이것은 일본인의 평화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광범위한 여론 조사였다. 여기에서 1931-1945년 사이의 만주사변과 미국과의 전쟁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선택지 내용은 그 전쟁이 일본의 자위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해방전쟁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7%가 그렇다고 답했다. 두 번째 내용은 전시에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군국주의의 추종자이거나 공모자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쁜 전쟁, 즉 침략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30%가 그렇다고 답했다. 마지막 선택지 내용은 보통의 일본인들은 희생자라고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책임이 없으며 군국주의 교육과 선전에 속은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인을 전쟁의 희생자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 36.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요약하면, 적어도 1984년에 다수의 견해는 전쟁에 대해 자신들을 희생자로서 인식하거나 군국주의적 침략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이후에는 이러한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다시 같은 조사를 하더라도 답변은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 결 론

결론을 내리자면 일본인은 희생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개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것이 오늘날 일본의 전쟁에 대한 기억이다. 때때로 해방전쟁의 개념을 공공연히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논의에서 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는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의 개념이 오늘날에도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3. 질의 및 응답

본 강연에서는 토론자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자와 참석자간에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질문과 답변의 일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Q. 박태균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오늘날 일본의 젊은이들의 역사 인식은 어떠한가?

A. 피터 두스 교수: 내가 수 년 전 교토 대학에 있을 때 한 여학생의 경우 히로시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진주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 일본 세대가 2차 대전이 중세시대의 이야기와 같거나 자신들의 삶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의 역사교육은 불충분한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Q. 문휘창 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 분야는 다르지만 강의를 흥미 있게 들었다.강의에서 미국의 재판과 일본의 재판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언급하셨는데 일본에 승자의 정의라는 것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왜 미국은 당시 천황을 기소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일본 대중의 반응이 두려웠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에 관한 다른 논의가 있었던 것인가?

A. 피터 두스 교수: 그에 관한 논의가 미 정부안에

있었다. 맥아더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천황을 재판에 세우는 것은 고사하고 퇴위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천황을 일본 대중 여론을 움직여 일본을 민주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일본 군부는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하는데 천황을 이용했다. 맥아더는 천황을 기소한다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미군이 100만 명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천황이 없었더라도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미 천황은 권력으로부터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그들은 천황의 카리스마를 좋은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으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Q. 김희진 학생(서울대 국제대학원): 최근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며 재무장을 하고 있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A. 피터 두스 교수: 일본의 군사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일본의 방위비는 세계5위 정도이고 이것은 매우 큰 규모이다. 기술면에서도 이미 최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다. 만약 일본이 정말로 재무장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미사일, 전함, 그리고 항공모함을 가질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그렇게 하면 국민이 비용문제 등으로 인해 불평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일본이 중국을 걱정하기 보다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위협당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들에 관해 그들이 일본에 돌아왔을 때 큰 사회적 반향이 있었다. 그리고 검은 돈과 마약 같은 것을 나르는 배가 일본에 왔다 간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재무장을 고려하기 보다는 북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5, 6년 후의 아시아 평화를 위한 핵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나로서는 일본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는 한 재무장에 대한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토론을 끝으로 강연을 마무리 하였고, 피터 두스 교수는 앞으로 양 대학의 더욱 활발한 연구 및 인적교류를 강조했다.

▶일본연구동향

日本研究座談會 시리즈 III 일본 연구의 회고와 전망

1. 개 요

본 일본연구센터에서는 『일본 연구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실시하였다. 2003년 10월 18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개최된 이 토론회에는 각계의 일본 경제·경영연구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본 집담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일본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한신대 배준호 교수와 숙명여대 이형오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이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본 집담회의 참석자와 주제발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자: 김현철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발표자: 배준호 교수(한신대학교 국제학부)

『국내 일본지역(특히 일본경제) 연구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이형오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국제학부)

『일본 경영연구의 현실과 문제점』

참석자: 김갑수 박사, 김도형 교수(계명대학교)

김양희 박사(KIEP), 선재원 교수(평택대학교), 서정해 교수(경북대학교), 손일선 박사, 온기운 박사(매일경제신문사), 이원우 교수(숭실대학교), 이우광 박사(삼성경제연구소), 정진성 교수(방송통신대), 조성원 교수(고려대학교), 한미경 박사(한양대학교)

특히, 본 집담회에서는 지금까지 일본연구의 대부분이 정치경제학 분야에 집중되었던 것에 대해 앞으로 경제·경영 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되었고, 이를 위한 일본연구센터의 중심적 역할이 강조되었다. 즉, 지금까지의 자료센터의 역할에 더해 명실상부한 연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토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일본연



구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주제 발표 내용을 소개한다.

2. 국내 일본지역(특히 일본경제) 연구의 현주소와 개선방향(배준호 교수)

일본지역연구 전반

현재 일본경영에 관한 한 연구도 부족하고 데이터도 부족하다. 경제분야도 정치경제 분야에 비해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일본연구는 정치학 분야가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왜 그런 현상이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90년대 까지 일본연구는 전체적으로 미약하다. 이것은 일본의 위상 약화와도 관계가 있다. 하지만 정부도 90년대 후반 들어 일본연구의 중요성을 깨닫고 국제대학원 등에 많은 지원을 했다. 하지만, 8년 여 지난 현재 연구를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는 곳은 몇 곳 되지 않는다. 국제대학원 이외에 일본학계 전체적으로도 지난 10년간 일본연구에 대한 열의가 식었고, 자기 개인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지역연구를 선도해 온 것은 학계의 정치와 정치경제를 전공한 연구자들이고, 연구기관으로는 삼성, 현대, LG 등 3대 기업의 전문 연구원이고,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소수의 정책 지향적인 연구가 시행되었다. 주로 금융, 사회보장, 국제통상, 재정, 노사문제와 관련한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2003년 10월을 기준으로 국내 일본 지역연구 특히, 일본경제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향후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겠다.

일본의 정치, 외교, 국방 분야는 학계의 정치학과 국책연구기관(세종연구소 등)의 전문연구원들이 중심을 이뤄왔고, 경제, 경영 등의 분야는 학계의 정치경제학과 민간연구소 연구원 등이 중심이 되어 연구를 진행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경제, 경영분야에서는 학계의 경제, 경영학과와 국책연구기관 전문연구원 등에 의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이들 정치경제학과와 민간연구소 연구원의 연구 보다 덜 활성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된 배경은 공적 연구지원 자금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정치학 또는 정치경제학자 그룹이 경제학 또는 경영학자들보다 접근이 용이했고, 정부당국

(혹은 국책연구기관)과 달리 일본 지역연구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일본 지역 연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일본 지역연구는 영어bum, 중국bum에 밀려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약화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며, 지금은 생존차원에서 연구가 절실한 민간부문 수요에 의해 그나마 연구가 진행 중이며, 정부나 공적 연구기관 차원의 연구는 생색내기 차원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적 차원의 연구지원은 학술진흥재단과 한일관계 재단 등의 지원에 의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정치, 정치경제 학자와 관계가 닿는 일부 노장학자 서클을 중심으로 재원이 집중 배분되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대부분의 연구성과를 내었다.

일본경제연구

일본 경제연구의 경우는 크게 3가지로 연구인력, 연구성과, 연구지원 체계로 나누어서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겠다. 먼저 인력은 일본경제의 경우 현황과 문제점 등 현주소를 살펴보고 향후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순으로 설명하겠다. 연구인력 중 연령분포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뽑아보지 않았지만 60~70대는 각각 5인 이하, 50대는 5~10정도, 40대는 15~20인 사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전공분포는 노동, 산업분야가 많고, 재정, 금융, 거시경제 쪽이 두세 명 정도 있다. 소속을 살펴보면 대학, 국책연구기관, 기업연구소, 기업단체, 정부, 일본 내 대학 혹은 연구기관, 일본 이외 외국대학 혹은 연구기관 등 이런 곳에 일부 근무하고 있다.

인적네트워크(공적, 사적)의 구성여부와 강도는 상대적으로 공적이든 사적이든 정치학에 비해 네트워크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성과는 정부가 이용할 만한 정책 제안은 많지 않았다. 기술적이고 조망형의 보고서나 시사점 모색 연구가 많았다.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조사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제연구의 문제점에 관해서 연구인력을 보면 일본 수학자 중 상당수가 일본경제 이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결과 일본경제는 통상적인 “일본경제 전문가” 보다는 정치경제 전공자들의 무대화 되었다. 일본 경제를 연구하는 세대간 또는 세대내 공동연구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약해 대규모 정책 자금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향, 이것이 결정적이었고 함께 모임 기회가 적어서 유대 관계도 적었던 것 같다. 일본 내 한국인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일본 이외 해외 연구자와의 연계 연구가 빈약했고, 자극 부족으로 연구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었으며 연구결과를 비교해 볼 수가 없었다. 귀국 후 연구자들의 한국 내 학계 혹은 연구전문분야 등장 이후 학계 혹은 관계로부터의 평가가 낮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후학의 등장과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는 미국 유학과와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학 분야에 비해 경제, 경영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또한, 일부 학회의 필요 이상의 규모확대와 (해외교류 중시 등) 사교 모임화도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연구성과에 관한 것인데 일본의 현황소개에 그치는 연구가 다수이며 일본인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 소개와 시사점을 추구하는 연구가 많았다. 오히려 민간기업 연구소 보고서에 좋은 정보가 많다는 얘기도 있고, 학술적, 기초학문적 연구가 미진했다. 우리 관점에서 본 일본 경제연구가 미진하고 전문학술지의 등급이 낮고 공동연구가 적어 연구성과물이 적게 배출되었다. 중국의 부상으로 일본 경제연구의 상대적 중요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당국에 의한 지나칠 정도의 일본연구 필요성 폄하로 사회적, 정책적 수요가 저하되었다. 그리고 금융개혁, 구조조정, 일본형 시스템 등의 분야는 경제전문가보다 오히려 정치경제학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연구지원체계 측면에서는 국내 중점 연구기관의 변경과 이후 중점 연구기관의 기능저하 등을 들 수 있다. KIET에서 KIEP로 변경되고, KIEP 연구인력이 최근에 책임자4명 체제로 이는 과거의 12명에서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학술진흥재단, 국내 각종 재단 등 당국의 재정지원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었다. 국제교류기금, 도요타재단, 스미토모재단 등 일본의 공적, 사적 지원기관의 지원금 규모도 최근 들어 축소해 가고 있다. 또한, 일본 경제 연구자들의 공적 진출이 줄어 든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경제연구의 개선방향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연구 인력면에서는 관계분야 학자(교수), 민간연구소 연구원, 공무원

간의 연구회 등 연구공간의 활성화가 절실 하다. 공동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연구정보, 연구성과, 기타 학술정보 등의 공유체제 정비가 시급하다. 연구자 자신의 환골탈태적 자세가 필요하고 연구대상과 공동연구자 범위를 중국, 영어권 지역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보공유와 자금공유를 통한 연구자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간의 매너리즘에서 탈피하여 한국인의 눈높이에서 본 참다운 일본 지역연구를 지향해야 한다. 국내 정치경제학 연구자, 일본 내 한국인 연구자, 미국, 영국 등에서 수학한 일본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연계강화를 통해 시대흐름에 맞고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형태의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세대 간, 세대 내 연구 인력간 연계체제를 강화하고 학술 및 매스미디어 활동과 관련하여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연구성과와 관련해서는 공동연구 분위기 조성으로 각종 연구기금에의 접근 개선을 통한 공동연구 추진과 간행 작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기금 조성을 통한 중장기 연구의 추진과 이를 통한 연속 간행물의 발간을 추진해야 하며, 연구대상과 범위를 한국과 일본으로 한정하지 말고 한 중 일, 한 중 일 아세안, 한 중 일 아세안+미국 등으로 확장하여 확장된 틀 안에서 한일관계와 일본경제의 동향을 분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시점에 입각한 조사 작업과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연구지원체계는 중점 연구기관의 기능 활성화와 중점 연구기관의 재원 배분 기능 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KIEP가 주가 되고 있지만 이외 제2의 중점 연구기관 활성화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한국 내 경영학 관련 일본연구의 현황과 과제(이형오 교수)

일본기업 연구의 의의

일본기업을 연구하는 의의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일본기업을 연구하는 의의로서 경영학 이론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일본기업만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첫째, 기업 현상을 설명하는 기존 이론이나 가설을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검증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은 점진적 프로세스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가설이 있는데, 이러한 가설을 실제 소니(Sony)가 해외 진출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인 연구자가 한국 내에서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단, 미국에서 공부한 연구자 중, 가설 검증의 대상으로서 일본기업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실증데이터의 신뢰도가 한국기업 데이터보다는 일본기업 데이터가 높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그 실례로서 일리노이 대학에서 공부한 연세대 최순규 교수의 “파트너 국적, 네트워크 관계, 그리고 국제 합작기업의 생존: 북미에 설립된 일본계 합작 기업들에 대한 고찰,”(국제경영연구, Vol. 14, No. 2, 2003년 9월)이라는 논문이 있다. 이러한 논문은 전형적인 가설 검증 연구라 하겠다.

그리고 두번째는 좀 더 어려운 경우이지만, 일본기업을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가설이나 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경우이다. 예로 노나가 이쿠지로 교수는 일본기업의 행동을 연구함으로써 지식창조이론(표출화-연결화-내면화-공동화)을 구축하였다. 첫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연구는 한국인이 한국 내에서 실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 같다. 단, 일본 내에서 한국인이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가설이나 이론의 도출을 시도한 경우는 있다. 그 실례로서 본인의 논문 “기업간 시스템의 선택 메커니즘: 거래 비용론과 자원 거점론의 통합”(인사조직연구, Vol. 11, No. 1, 2003년 2월)을 들 수 있다.

위의 두 경우는 일본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이지만, 일본기업을 비교연구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세번째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문화, 제도, 기타 등의 요인을 들어, 비교경영학의 관점에서 일본기업을 연구하는 경우이다. 즉 다른 제도 속에서는 다른 경영시스템이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가령 일본은 미국보다 더 집단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의 경우는 팀 중심의 평가가, 미국은 보다 개인 중심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아오키-오쿠노-오카자키 등은 비교제도 분석론이라는 분야를 개척하기도 했다. 이들은 역사적,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 일본은 J타입, 미국은 A타입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기업과 한국

기업, 나아가 미국기업, 중국기업, 아시아 기업 등 여러 나라의 기업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한국인 연구자에게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한국기업과 일본기업, 삼성전자와 소니를 비교함으로써 기업의 전략에 따른 성과의 차이를 논의할 수 있다. 또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혁신시스템을 비교연구함으로써 기술혁신시스템에 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기업의 현상을 이론과 연결시키지 않고, 기업 또는 산업의 사례 또는 그 역사를 연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네번째는 어떤 이론적 배경 없이 사례연구로서 기업이 실제 행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예로 도요타 자동차의 구매시스템 연구처럼 기업연구소나 정책연구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연구가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이것은 사실 그 자체로써 한국의 기업 또는 정부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단, 사실 그 자체로서는 학술적 의의는 약하다. 따라서 사실을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일본기업 또는 산업의 역사를 연구하는 경우이다. 도요타 자동차가 도요타 생산시스템을 형성해 온 역사를 연구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연구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로서도 흥미로울 수 있고, 나아가 그러한 역사적 사실로부터 현실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일종의 연구분포를 살펴보았다. 개인적으로는 자료 문제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는 세 번째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 좀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일본의 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교를 통해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프로젝트로 많이 하고 있었지만 이것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일본기업 연구 현황

이러한 방법론과 접근 방법 다음으로 앞으로 어떻게 연구해 나가야 할 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한국사람이 일본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한국 내에서 이루어진 일본기업 관련 연구를 연구분야별 및 게재 저널별로 분류해 보았다(이것은 한정된 자료 조사이다). 검색된

자료가 전체 연구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검색된 자료는 연구의 전체상을 반영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검색된 내용만을 근거로 연구 상황을 설명하겠다.

연구분야는 전략/국제경영, 조직/인사, 생산/R&D/MIS, 마케팅, 재무, 회계, 기타로 분류하고, 분류표에 따른 분류를 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 연구 유형으로서는 현장 실례의 경우가 가장 많고, 2) 한일비교를 한 연구도 일부 있다. 3) 연구 분야별로는 조직 및 인사 분야에 관한 연구가 많고, 4) 전략, 생산, 유통에 관한 연구가 일부 있으나, 재무, 회계 분야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연구상황을 게재 저널별로 분류할 수 있다. 분류표에 따라 분류해 보면, 대부분 많은 연구가 A, B, C급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데, 이는 개별 대학에서 발행하는 저널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저널에 게재하는 것이다. B급 또는 C급 저널에 일부 연구가 실려 있다. 그리고 A급 저널에는 아주 소수의 연구만이 실려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관계 연구가 주로 영향력이 미약한 저널에 게재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 방법론상 주로 사례연구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관계 연구가, 통계분석을 우선시하는 주요 저널에 실리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 인지도 모르겠다.

일본기업 연구의 과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연구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연구분야와 관련하여 현재의 연구는 현장 실례의 소개가 중심이 되어 있고, 특히 조직분야에 관한 연구가 많다. 향후, 이론 검증 또는 형성과 관련하여 일본기업을 연구할 필요도 있으나, 한국인이 한국 내에서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얘기한 노나가 교수와 같이 일본기업을 늘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해야 가능한 것이다. 한국인이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분야는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비교연구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한미일, 한미중일, 아시아 지역 등 다양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비교연구를 하는 것이 의의가 클 것이다. 연구분야로서 인사조직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한국기업이

일본기업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분야는 R&D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게재 저널 상의 문제는 현재는 주요저널에 게재된 일본관련 연구가 부족하며 향후, 경영학 관련 주요저널에 적극적으로 논문을 게재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학계 이외의 분야 즉, 연구소 언론에서도 적극적인 일본기업 소개를 통하여, 일본기업 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론상의 문제로서 현재 한국의 주요저널은 사례연구를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사례 자체를 사례중심 저널 예를 들어 경영교육연구 등에 투고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단순 비교보다는 일본기업 연구 또는 한일 등 비교연구를 통하여, 가설검증 및 가설 도출형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에는 특히 일본에서의 연구방법론이 효과적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식의 연구는 한계가 있다. 이론 연구만으로는 현실적인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례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씩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이론과 사례연구를 종합한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토 론

이우광: 연구방법론도 방법론이지만 테마설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타미 교수의 전략백서라는 책이 일본에서 나왔는데 그 책 4장을 보면 '한국의 삼성전자가 일본기업을 추월한 이유에 대한 전략적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비교해서 성공요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것인데 이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그뿐 아니라 다른 책도 이와 유사한 것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도 놓치면 안 되는 테마인데 일본이 선수를 친 것이다. 현상을 보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김갑수: 연구분야를 보면 일본지역을 연구한다 하더라도 이노베이션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상태에서 연구를 해야 한다. 일본을 연구할 때 재벌, 금융, 재무 등이 아니라 일본의 이노베이션, 일본의 시스템이 연구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것 들은 한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다.

이우광: 이노베이션에 관한 학회지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이에 관한 학회가 일본의 주요한 학회 중 하나이다. 일본 연구를 할 때 기초자료 통계 및 조사는 연구팀을 공동 작업화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연구 기관에서의 연구는 본 테마가 있고 일본을 보조적인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학술 논문지의 경우는 단편적인 학문적 호기심이 많고 공동 연구가 부족하고 관심도도 많이 떨어져 있다. 이에 대해서 목표를 출판으로 잡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성의 문제도 있다. 그 다음은 소속성의 문제이다. 어딘가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임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궁금하다. 큰 활동은 하지 않더라도 뿌리를 두고 계속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몬기운: 저는 언론에 있다 보니까 시대 흐름에 민감한 편인데, 도요다 자동차는 일본 제조업의 부활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산업을 보니 현대자동차 등과 이에 대한 비교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일본 연구를 한다면 이런 기업과 연관시켜서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별로 없다. 그렇지만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펀드 문제는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도 가능하다.

이우광: 기초 데이터와 관련해서 일본 경제 신문사와 접촉하면 모든 정보가 다 있다. 일본 경제신문사가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4년이 걸렸다고 한다. 총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에 접속만 하면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다. 닛케이 텔레콤이 그 예이다. 이런 것을 한국에서 새로 구축하기 보다는 그런 곳을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현철: 일본 자료 검색은 일본연구센터에서 가능하도록 다 되어있다. 이곳에 오면 일본 연구자들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외부에서 사용은 안되고 이곳에서만 접속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김양희: KIEP에 있으면서 좀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보았다. 일본연구의 기본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국책연구소와 학교의 역할 분담과 연계가 중요하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 결과도 다르다. 국책연구소도 정부가 고급 정보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 힘이 든다. 정

부 공무원들은 아웃소싱을 하면서 구체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정부가 근시안적인 성과, 지나치게 세밀한 정책연구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이다. 지역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한 단계 끌어 올리기 위해 당장은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기초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이러한 모임에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이우광: 대부분 공감하는 것이지만 지역연구에 대한 방법론, 학제적인 연구가 힘이 든다. 최근 일본 연구자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은 지역연구에 있어 문제이다. 환경이 바뀌었고 학생도 줄어드는 실정이다. 지금은 다음 세대가 지역연구를 이어갈 바탕이 안되어 있다. 과거 식민지 연구하시던 분들 이후 주로 번역 위주의 작업이 이루어 졌다. 공통된 언어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본격적으로 일본을 연구한 것은 90년대 중반 들어서 인 것 같다. 이때 경제논리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입맛에 맞는 일본연구가 이루어진 것 같다. 결국 기초적인 학문이나 방법론은 부족했다. 최근 후배들은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지만 왜 그런 것을 한국에서 살리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그것은 연구자들의 책임도 있다. 펀드를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면서 연구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 국책연구소도 책임이 있다. 결국 방법론은 미국식의 것을 개인적으로 습득하고 네트워킹해서 종합연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연구센터도 네트워킹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자체 연구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현철: 한국을 아는 일본 학자는 많은데 일본을 아는 한국 학자는 적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과거 일본에 대한 연구를 정리한 후에 비교 연구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일본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공부한 우리들은 좀더 다른 방향에서 일본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처음 국제대학원을 만들면서 고 김장권 교수님과 함께 생각했던 것은 100년을 가는 연구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연구의 거점이 되어 보자는 것이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의 많은 조언을 부탁한다.

위의 내용은 토론의 일부이며 실제 모든 참석자들의 보다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지면 관계상 일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5. 맺음말

끝으로 모든 참석자들은 일본연구센터가 일본연구의 거점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정치분야 외에 경제/경영분야의 연구지원은 물론 연구의 중심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모임을

정례화 해 줄 것과 연구기금 조성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이날의 모임에서는 앞으로 일본연구의 방향을 다양화하고 보다 내실 있게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각계의 연구자들이 모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는 모임이었다.

문의

일본자료센터 TEL (02)880-8503

FAX (02)874-3689

E-Mail miyabi@snu.ac.kr

Homepage <http://gsis.snu.ac.kr/japan>